

D. H. Lawrence의 자아추구

-(B) *Tom Brangwen* 과 *Lydia Lensky*의 자아-

박 정 길*

A study on the Pursuit of D. H. Lawrence's self

-(B) *Tom Brangwen* and *Lydia Lensky* in *The Rainbow*-

PARK JEONG-GIL

This essay is not intended to survey the whole range of lives connected with the Brangwens : It's purpose is a more limited one namely *Tom Brangwen* and *Lydia Lensky*, the first generation of the Brangwens.

Throughout *The Rainbow* the three generations of the Brangwens' men and women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their intimate relationships. And there are still confusion to this positions : *Tom Brangwen* and *Lydia Lensky* are successful : Anna and will are only partly successful, while Ursula does not succeed at all.

As I have already mentioned, my discussion in this article will be centered to the movements towards unity and towards separateness of the beloved according to Lawrence's way of thinking, and here I will try to show how he expands and expresses the *selves* of characters, and finally how to approach "individuality" who will ultimately reveal each to himself and herself.

Tom and *Lydia* actually experience far less difficulty in achieving a sense of unconscious selves, and still when they encounter, both are suffering the consequence of a divided soul ; because of an adolescent sexual adventure in a pub., *Tom* experiences an unbridgeable division to the the mind and the body.

Like *Tom*, *Lydia* also experiences not life but a death like state, She ma-

* 한국해양대학 교수(영문학 전공)

ried Paul Lensky and she was “*carried alone in her husband’s emphasis of declaration*” overwhelmed by the vividness of his talk and thus “*obliterated.*”

But *Tom’s* basic healthness and Paul’s death free them from their bondage and the consequences bound them spiritually as well as physically.

In their vital contact, they attained a sense of *self* on its most basic level, both *Tom* and *Lydia* are(now) ready to enter into a genuine relationship : at certain moments, Lawrence portrays *Tom* and *Lydia* as feeling rage and hostility towards each other and at other times, the two experience moments of intense bliss, and the relationship seems almost perfect.

Sometimes the air of detachment displayed by them, but they are in touch with the unconscious. Both are now the movement towards unity and the movement toward separateness : In *Lydia’s case*, th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irritated her to be made aware of him as a separate power*”, And in *Tom’s case*, it was “*a profound satisfaction that she was a foreigner.*”

They experience intense feelings of oneness with each other through the movements, and they have reached complete fulfilment : “*their coming together now, after two years of married life, was much more wonderful to them than it had been before. it was the entry into another circle of existence, it was the baptism to another life, it was the complete confirmation. Their feet trod strange ground of knowledge, their footsteps were lit up with discovery. wherever they walked, it was well, the world reechoed round them in discovery. They went gladly and forgetful. Everything was lost, and everything was found. The new world was discovered, it remained only to be explored.*

They had passed through the doorway into the further space, where movement was so big, that it contained bonds and constraints and labours, and still was complete liberty. She was the doorway to him, he to her. At last they had thrown open the doors, each to the other, and had stood in the doorways facing each other, whilst the light flooded out from behind on to each of their faces, it was the transfiguration, the glorification, the admission.”

By passing through this particular stage in the relationship, *Tom* and *Lydia*, the first generation of the Brangwens, have at last passed the beyond and entered into the blissful realm of *individuality*.

“*And always the light of the transfiguration burned on in their hearts. he went his way, as before, she went her way, to the rest of the world there seemed no change. But to the two of them, there was the perpetual wonder of the transfiguration.*”

They have achieved the end of love : their achievement remains unmatched

the writer thinks.

D. H. Lawrence에게 있어서 일생동안 그를 떠나지 않았던 하나의 사상이 있었다면 그것은 널리 알려진 대로 남녀간의 혈적교섭(blood intimacy)을 통한 개인적인 삶의 완수가 바로 그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개인적인 삶의 완수를 위하여 남녀간의 꾸준한 혈적교환의 추구, 그것이 그가 일생을 통해 주창했던 삶의 이상(Idea of life)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부자연스런 관행일 뿐으로 되돌아 볼 여지가 없는 무가치한 공념 불이었다.

그가 창도했던 - 'Idea of life' - 라는 논리의 근간은 자아충족(Self-fulfilment)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등장시키고 있는 인물의 Personality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밖에 없다고 할 때 그의 신념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Self-fulfilment의 추구는 그가 묘사하고 있는 주인공들의 성적교섭(sexual relationship)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알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자아충족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물들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Actions을 살펴보는 일은 Personality를 다각도로 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유의하지만 이런것들이 Lawrence의 Ideology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를 적절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할 만한 사항들이기도 하다.

자아충족에 대한 Lawrence의 Ideology는 상대방의 희생 위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게 있어서 성적교환은 본질적으로 어느 한쪽이 자기만의 희열을 추구하려는 나머지 상대방에게서 반발해 가는 부조와의 도정은 아니다. 그런데 성적교환에 대한 여러가지의 예언적 주장이나 설명들이 다소 혼란스럽고 산만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모호해서 때로는 일관성을 찾기가 힘들지만 근본적으로 혈적평등상태에서 실현되는 혈적교환이 대전제로 되어있다고 본다. 특히 남녀간의 교섭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가름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만큼 철저하게 혈적관계 균형과 조화라는 수칙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의 Ideology는 특징적이다.

그러나 한사람의 파트너로서의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이라는 것이 보통 다른 사람의 희생위에 실현되거나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꺼이 종속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성취되는 과정쯤으로 보아온 전통적 관념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문맥등에 표현된 작용의 역할 담당이나 그 주도적인 세력이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남성이었다는 점에서 '평등'이라는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해 온 관행으로 인하여, 왕왕 당연하고도 우월한 행위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의 논리에 거의 모든 독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며 바로 이런 사실이 그의 논지를 더욱 산만하게 이해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 *Lawrence*에게 있어서 평등이라는 이 과정은 적극적인 男女交歡의 초보적인 하나의 전제에 지나지 않는다. *Lawrence*는 ‘The Study of Thomas Hardy’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The final aim of every living thing, creature, or being is the full achievement of itself’¹⁾

그런데 상술된 말중에서 ‘The full achievement of itself’라는 말은 생명력이 넘치는 인간의 삶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서 인간의 가치는 상대방의 내심에 잠재하고 있는 신비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끌어 내어 그것을 얼마나 의식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 신비적인 것은 성적관계라든가, 죽음의 체험, 자연현상에서와 같이 제한불가의 충동적이고도 막강한 움직임, 이성이나 의식작용이 배제된 채로 표출되는 폭발적인 강열한 욕구와 같은 과학적 지성의 힘이 가장 적게 작용하는 생명의 본능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완벽한 자아의 성취’, 그것은 *Lawrence*가 지향하는 Ideology의 핵심이며 *The Rainbow*의 Tom과 Lydia라는 새 1세대가 실현해 보이고자 하는 사랑의 완수와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Lawrence*는 여기서 관능적 공생관계와 제휴하고 있는 Non-human world라는 주관적 세계와 관능적 공생관계와 무관한 객관적 세계, 이 양자와 대립되는 두개의 세계를 합성하거나 일시적으로 제휴하는 형식을 취한다.

즉, *Lawrence*는 불평등사회(unjust society)의 전통적 상황 아래에서 남녀 관계는 자아충족과 같은 지금의 자아실현이라는 목표와는 다른 Bourgeois의 Ideology로 간주하여 이를 반대했다. 그것은 평등이 아니라 상대의 희생을 던고 얻었던 자아충족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한 자아충족의 저변에는 행복이 자리했던 것이 아니라 적의만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self-realization이야말로 밀접한 성적교섭 외에는 성취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가 서로의 만족이라는 주장에 떠밀려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unjust society라는 환경 아래서 치뤄지던 결혼이라는 사회적관계를 자아충족을 위한 성적교섭의 전단계로 원용하고 있는 사실이 이채롭다 할 것이다. 결혼이라는

1) *Phoenix*, E.D.MacDonald ed. the posthumous papers of D.H.Lawrence. Heinemann, 1961, p. 403 ; 이후 이 책의 인용은 phoenix. page로 표기함.

관행도 그토록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Bourgeois*의 *ideology*이며 둘의 만남은 결혼이라는 통과례가 아니어도 이미 사회적인 교섭인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Lawrence*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윤리와 사회적인 교섭관계는 밀접한 성적관계를 통한 자아완수에 이르는 신비의 추구와는 별개의 것이다.

이런 점에서 *Lawrence*가 *Tom*과 *Lydia*를 이상적인 model로 삼음에 있어 결혼이라는 전통적 관행을 생각해 내고 *Tom*과 *Lydia*를 자신의 love-ethic에 충실한 model로 취급하려한 것은 일면 회피할 수 있는 관행을 'idea of life'에 이르는 한가지 수단으로 삼은 것은 아이러니이다.

그러나 self-fulfilment에 대한 *Bourgeois*의 *ideology*를 거부하고 신세계에서의 성공적인 남녀관계를 조화와 균형(harmony and balance)이라는 장치에서 찾고자하고, 자아충족을 통하여 주의적견해(voluntaristic view)와 결정론적 윤리(deterministic ethic)사이에 놓여있는 immortal being의 처지를 보다 뚜렷이 하려한 그로서는 상호 동의에 의한 선택과 호응 또는 거부라는 매카니즘의 제 과정을 통하여 불평등사회의 상황 아래에서 은폐되었던 자아를 자신의 *ideology*에 따라 적나라하게 노출시킴에 있어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The Rainbow*의 제1세대인 *Tom*과 *Lydia*를 통해서 *Lawrence*가 표방코자 했던 자아추구의 과정을 제한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바, 주인공들이 겪는 경험과 태도에 따라 *Lawrence*가 시험하는 *ideology*에 특히 유의하고자 한다.

*Tom*과 *Lydia*가 맞는 사랑의 역정은 *Lawrence*가 사랑에 대하여 얘기할 때 그의 심중에 품었던 의중의 전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Tom*과 *Lydia*의 관계는

She was the gateway and wayout, that she was beyond, and that he was travelling in her through the beyond. Whither? - What does it matter? He responded always. When She called, he answered, when he asked, her response came at once, or at length²⁾(R. 96)

라는 말로 대표되며 사랑의 모범으로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Tom*과 *Lydia*의 관계나 그들이 완수해낸 행복의 과정을 이해하거나 다름에 있어 표면적인 내용의 서술만으로는 *Lawrence*가 말하는 love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이 경우 *Psychoanalysis and the unconscious*에서 사랑하는 양성이 필수적으로 성취해야할 덕목으로 'a perfected harmony between the beloved'라

2) *The Rainbow*, D.H.L. penguin. G.B. 1987 : 이후 R. page로 본문속에 표기함.

거나 'the perfecting of each single individuality'³⁾라는 말이 제시되고 있음을 본다.

이는 바로 *Lawrence*가 표방하는 사랑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 *Lawrence*에게 있어서 *self*라는 개념은 가장 기본적 요소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life-motive로써 이는 무의식(unconscious)의 수준에서 또 다른 life-motive와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게된다.

그리고 이러한 life-motive의 상호관계는 통합이나 분리 그 어느쪽을 향한 동적 과정에서 흡수와 반발(attraction vs. repulsion)의 반복적인 활동이 있기 마련이며 이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Lawrence*에게는 love인 것이며 이러한 제반활동을 통해서 자아가 확산되고, 자아가 표현되며, 마침내는 'wholeness'를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relationship=love, 그 자체는 individuality=self의 성취라는 궁극적 목표를 완성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relationship'과 'individuality'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같은 통합과 분리(Unity and Separate)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건강한 자아는 가식의 사랑과는 Unconscious level에서 항상 대립되고 있으며, 건강한 사랑은 언제나 탈인성적(Impersonal or non-human)인 요소와 관련을 맺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Unconscious'의 수준에서 제후되어 이룩된 'two synchronizing activities of love', 그것은 conscious 또는 mental-level에서 보다 더 깊은 개인적인 'self'의 영역과 'Impersonal elements'와의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⁴⁾

'미국고전문학연구'에서 *Lawrence*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⁵⁾

- Ⓐ The central law of all organic life is that each organism is intrinsically isolate and single in itself.(SCA. p. 62).
- Ⓑ The second law of all organic life is that each organism only lives through contact with...other life.(SCA. p. 62).
- Ⓒ We have our very individuality in relationship.(SCA. p. 190).

이상의 몇가지 언급으로 미루어 그가 인간존재의 가장 충실한 삶의 의의를 보

3) cf) "Nothing in the least conceptual, and hence nothing in the least personal, since personality, like the ego, belongs to the conscious or mental-subjective self" (pu. 30)

4) *Psychoanalysis and the Unconscious*, D.H.L.(New York : viking press, 1972), p. 22 ; 이후 이 책의 인용은 /Pu/Page로 표기함.

5)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D.H.L. London. Henemann. 1964 ; 이후 이책의 인용은 SCA.page로 표기함.

다 가치롭게 하는데는 사랑하는 것만이 가능한 전부라는데는 무리가 없다. 우리는 ㉔에서와는 상반되는 ㉕와 같은 원칙을 접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의 이같은 간결하게 표현된 Paradox는 도처에서 ㉖처럼 그의 사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녀간의 사이가 평등이로되 필연적으로 하나가 되는 행위를 통해 합쳐질때 비로서 삶의 가치가 고양되고 개체의 존재 이유가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via media'(Study of Thomas Hardy(Phoenix. p. 410))가 있으니 그것이 사랑인 것이다.

그런데 Lawrence에게 있어서 남녀간의 성 그것은 본래 하나의 합을 둘로 쪼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쪼개진 틈을 메우기 위해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성의 교섭을 생각한 Plato의 Symposium과 같은 서구의 성에 대한 일반적 전통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Lawrence에게 있어서 그 같은 union은 Independent self의 부정이고 individuality의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같은 Union의 과정에 대한 언급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If the man, as thinker and doer, is active, or positive, and the woman negative, then, on the other hand, as the initiator of emotion, of feeling, and of sympathetic understanding the woman is positive, the man negative. *The man may be the initiator in action, but the woman is initiator in emotion. The man has the initiative as far as voluntary activity goes and the woman the initiative as far as sympathetic activity goes.* In love, it is the woman naturally who loves, the man who is loved. In love, woman is the positive, man the negative. It is woman who asks, in love, and man who answers. In life, the reverse is the case. *In knowing and in doing, man is positive and woman negative : man initiates, and woman lives up to it.*⁶⁾(Fu. 97.) Italic mine.

Tom과 Lydia의 만남은 unconscious의 차원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Tom과 Lydia에 대한 논쟁은 표면적인 의식의 수준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인지의 대상도 아니고 이성적 차원에서 파악되거나 포착되어 논리적인 설명으로 풀이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We know it by direct experience...Knowledge is always a matter of whole experience, what St. Paul calls knowing is full, and never a matter of mental conception merely.(pu. 15)

6) *Fantasia of the unconscious*, penguin ed. p. 97이후(Fu. page)로 표기함.

정신을 우위에 두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산업사회의 인간은 농경사회의 옛사람들과는 달리 'unconscious'의 수준에서 'dark knowledge'의 직접적인 경험이 이르기까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농경사회에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었고 육체의 활동이 정신적인 활동을 능가했으며, 계절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리듬을 좇아 인생살이도 조화를 이뤄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따라오듯 그 모든 행위가 상대의 희생에서 비롯된 댓가가 아니라 조화를 통한 것이었으며 인생살이의 양태 또한 조화와 균형으로 이룩된 유기적이고도 통합적 형태의 구성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데 *The Rainbow*의 첫 진경 묘사에서 보는 Marsh Farm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남녀간의 균형잡힌 관계로 기대하기에는 무엇인가 불안한 곳이다.

운하가 뚫리고 철도가 건설되고 있다. *Tom Brangwen*의 양친은 비록 다소의 곤란을 겪고 있지만 아직도 행복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Brangwens의 남자들에게서는 옛날부터 있어왔던 생동감은 사라져 가고 있으며 따라서 양성간의 Union은 위기에 처해있음이 감지된다.

이러한 현상은 목가적인 전원이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는 황폐화의 기계적 과정을 기술한 대목이 늘어남과 동시에 인간적 유대감은 반대로 점점 침식되어 가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Tom*과 *Lydia*의 개인적인 만남이 예비되고 시작된다. *Lawrence*에게 있어서 male→female의 균형이 매우 민감한 중요 요소임을 감안할 때 *Tom*과 *Lydia*가 당면해야 하는 unconscious stage에서의 이 두 남녀가 성취해야 할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다.

*The Brangwens*의 여성과 남성이 그랬던 것처럼, 또 *Cossethay*의 Marsh Farm과 *Ilkston*의 둔덕에 우뚝 솟은 교회의 첨탑(church-tower)으로 상징되는 환경이 말해주듯 희망과 동경은 제각기 균형있고 조화로운 천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리고 *Tom*과 *Lydia*의 경험 또한 그 발전단계가 매우 더딘것도 현실이다.

그동안 이들 두 사람은 사정은 다르지만 한동안 날아가버린 한쪽의 영혼과, 갈라오게어진 영혼의 아픔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Tom*은 사춘기의 성적모험에서 여자와의 수치스런 경험때문이었고, *Lydia*로서는 사별한 남편과 이로 인한 고달픈 이국생활 때문이었다.

*Tom*의 실질적 고민은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 *Son and Lovers*에서 *Paul*의 방황이 그러하였듯, Mrs. Brangwen 역시나 육체도, 무의식도 정신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신우위의 가치론자이다.

농장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아들이 자라는 것보다 지적으로 존경받는 아들이 되어 주기를 소망하는 어머니는 *Tom*의 나이 12세때 그를 문법학교로 보내고 있다.

그러나 Tom은 지식이라는 면에서는 항상 자신의 한계를 아는 염치있는 겸손한 아이였다. 그는 다른 소년들보다 ‘관능적으로 발달해 있고 본능에 있어서도 더 세련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책을 미워하고 학교를 떠날 때 기뻐했던 활력이 넘치는 아이였지만 그렇다고 지식을 미워한 아이는 아니었다.

어쨌든 학교생활에서 학습의 부진은 상대방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절대적 요건이랄 수 있는 동등감을 상실했다는 피해의식을 심어주었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 가려는 의지를 꺾어놓은 셈이 되었으며, 결국 Tom은 가족외적인 환경에서 우정을 맺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Tom의 그같은 실망은 Tom이 정신적인 면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어머니와는 물론, 누이와도 조화를 잘 이뤄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보상적 장치가 강구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public house에서 경험한 고통스런 추억 때문에 정신과 육체에 공히 메울수 없는 분열의 처절함을 맞보아야 했던 그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건강한 젊음을 희생시켜려는 Lawrence의 완화되지 않는 의도가 가세되고 있다; Tom이 Lydia와의 최초의 만남을 통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계시적이라는 사실이다: ‘that’s her,’ he said in voluntarily.(R. 29)

이 말에서 우리는 Tom의 저 깊숙한 내심에 자리한 자아의 움직임에 감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읽는다. 그리고 Tom의 깊숙한 내심에서 진동하는 unconscious의 파장을 접하는 것같은 직관적 호응을 감지한다.

시골길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조우도 똑같이 무심경의 신비스런 감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Tom에 대해 Lydia가 느끼는 감정은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각성 시켜준 남자’라는 표현으로 그녀의 모든 감정이 노출되고 있다.

She had felt Brangwen go by almost as if he had brushed her. She had tingled in body as she had gone on up the road. After she had been with him in the Marsh Kitchen, the Voice of her body had risen strong and insistent. Soon, she wanted him. *He was the man who had come nearest to her for her awakening.*(R. 55) *Italic mine*

그녀는 젊은날에 지식인이고 혁명가였던 의사 Paul Lensky와 결혼하고 있는 남편이 강조하는 애국주의와 해방사상에 가려 Lydia는 언제나 남편의 그늘에서 수동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Paul Lensky가 죽자 Lydia도 고통스런 명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처지에 여전히 남아 있다.

Paul Lensky가 죽기전 Lydia는 새아이(Anna)를 낳고 있으며 이 아이가 세상살이에서 미래와 연결고리를 드리워 놓고 있는 생명의 끈이 되고 있다.

Pains is a living reality, not merely a deathly(pu. 21)라고 Lawrence가 말했

듯이 *Lydia*의 재생은 확실히 고통스런 삶의 후에 온 것이며 설상가상으로 딸아이가 짐이 되고 있다.

Yorkshire에서의 목사관이 생활이 고달픈 것이었지만 ‘Something living’ (R 52)이라는 ‘새로운 것’이 *Lydia*에게 전해져 오고 있었으므로 그의 영혼은 깨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은 *Lydia*에게서 아직도 각성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인 영혼의 자아, 무의식속의 자아를 일깨워주려는 소생을 위한 절규같은 것이었지 분명 죽음에 이르는 고통은 아니었다. *Lydia*가 미칠듯이 삶의 회복을 요구하던 그해 겨울 눈꽃이 필 무렵 목사님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있고 Cossethay로 옮겨온 이후 마침내 *Lydia*는 싹트는 자아의 회생을 비로소 맞게 된다.

다음에서 우리는 *Tom*과의 만남이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Lydia*가 맞이할 행복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역설의 ‘life pains’이 너무 크고 매우 철저하게 작가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She was full of trouble almost like anguish. Resistant, she knew she was beaten, and from fear of darkness turned to fear of light. She would have hidden herself indoors, if she could. Above all, she craved for the peace and heavy oblivion of her old state. She could not bear to come to, to realize.

The first pangs of this new parturition were so acute, she knew she could not bear it. She would rather remain out of life, than be torn, mutilated into this birth, which she could not survive.(R. 54)

그러나 *Lydia*에게는 또하나의 새로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Cassethay에서 새롭게 맞이하는 생활을 혹시나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그녀의 불안한 심리(But she knew it was fragile, and she dread it.) (R. 54)를 무력한 존재(she was helpless.) (R. 55)로 *Lawrence*가 풀어간 대목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고통에서 풀려나와 정력적이고도 생동하는 자아로 변용하려는 *Lydia*의 노력앞에는 그녀가 예비하고 있는 강력한 힘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Lawrence*가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불러일으킬때 - 자연이나 동물의 생명에서 보는 가장 원초적이거나 가장 기본이 되는 힘 - (신비라해도 좋을)에서 매우 강력한 상상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품고 있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감동, 알을 안고 있는 그 긴장되고 열렬한 날개를 지닌 어미개똥새와 비유하고 있는 것

이다.(See R. 55)⁷⁾.

이로서 Lawrence의 Ideology는 두사람 모두가 Unconscious level에서 자아의 충족을 피할 수 있는 예비적 자세가 완료되고 있다는 인식에 접근해 있다. 그러나 남녀관계는 언제나 호응과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Tom과 Lydia의 관계는 혈적교환에서 나타나는 경탄과 상호간의 반발에서 오는 긴장의 연속이다.

그렇지만 Tom과 Lydia는 둘다 이제는 상대를 떠나서 자신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러므로 긴장속에서도 상대를 자기속에 늘 의식하려 하며, 상대를 의식하고 접근해 가는 태도 또한 소극적 혹은 적극적이라는 인식보다는 언제나 상대를 느낄 수 있는 자세가 예비되어 있는 균형의 자세로 변화를 기다리며 남아있다.

그런 의미에서 Tom과 Lydia의 결혼이라는 사건도 이 두사람의 사랑을 완결짓는 의미는 되지 못한다; 결혼 그것은 남녀간의 성적교환이라는 통념상의 사랑에 대한 인식과 Lawrence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사건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환언하면 결혼의 의식은 통념상 공개적이고도 사회적인 관행일 뿐으로 일반적으로 이성적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reasoning self와 관련을 맺고 있는 인공적이고 규범적인 것이라 할 때 표면적인 그것과 확연히 다른 심층적인 instinctual self와는 구별되는 개념인 것이다.

간추리면 Tom과 Lydia의 결혼은 Blood와 mind간의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상의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상반되고 대립되는 관계일 뿐이다.

따라서 Marguerite Beede Howe의 말대로 'blood to mind, mind to blood'⁸⁾와 같은 행위를 통해 상대를 인식하며, 변화하는 의식의 과정을 *The Rainbow*는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논평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 하겠다.

M.B.Howe의 지적에서도 나타났듯이 Lawrence는 consciousness와 unconsciousness의 대립을 통하여, 혹은 번갈아 전후의 단계를 교체해가며 혹은 탄생과 죽음

7) And there was no escape. Save in the old obliviousness, the cold darkness she strove to retain. But the vicar showed her eggs in the thrush's nest near the back door. She saw herself the mother-thrush upon the nest, and the way her wings were spread, so eager down upon her secret. *The tense, eager, nesting wings moved her beyond endurance. She thought of them in the morning, when she heard the thrush whistling as he got up, and she thought 'Why didn't I die out there, why am I brought here?'* (R. 55)

8) *The Rainbow* deals with the transition between one state of awareness and the other. Again and again characters pass from blood to mind, to blood, as Lawrence attempts to clarify the process of changing consciousness: *The Art of the Self* in D.H.L., Ohio Univ. press 1977. p. 29.

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때로는 경색된 형태이거나 용해된 형태로, 또는 융합된 상태이거나 구체화된 결정체의 모습으로 상황과 사건을 Images의 변화를 좇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서술되고 있는 변화의 모습들은 모두가 다 혈적교환에 대한 감정을 처리할 수단이 되고 있다.

- Ⓐ A shiver, a sickness of new birth passed over her, the flame leaped up him, under his skin. She wanted it, this new life from him, with him, yet she must defend herself against it, for it was a destruction.
- Ⓑ And then it came upon him that he would marry her and she would be his life.
- Ⓒ Unless she would come to him, he must remain as a nothingness. It was a hard experience.
- Ⓓ And admit and know that without her he was nothing. He was nothing. but with her, he would be real.
- Ⓔ You are free, aren't you ?
- Ⓕ 'Yes, I am free to marry.'
- Ⓖ He had her in his arms, and, obliterated, was kissing her. And it was sheer, blenched agony to him, to break away from himself.
- Ⓗ Then, for a few seconds, he went utterly to sleep, asleep and sealed in the darkest sleep, utter, extreme oblivion.
- Ⓙ He retruned gradually, but newly created, as after a gestation, a new birth, in the womb of darkness.
- Ⓚ And the dawn blazed in them, their new life came to pass, it was beyond all conceiving good, it was so good, that it was almost like a passing-away, a trespass.

(R45~6)

그런데 이렇게 밀접한 감정의 연결은 'blood relationship'이 가능한 Sex가 via media가 될 필요성이 있게 되며 이같은 *vital self*를 인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성간의 혈적관계의 교섭에서만 생명력이 넘치는 자아를 창조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Tom*과 *Lydia*의 경우, 둘은 이따금 상대를 적대시하기도 하고, 흡족한 행복의 순간을 맞기도 한다. 처음부터 그들은 변화 무쌍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 두쌍이 연출하는 갈등적 국면을 *Lawrence*는 사랑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이용하여 마찰의 파동을 풀어갔다 :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진실된 사랑의 정의와

일치되는 만남을 계획했으며 *Tom*과 *Lydia*의 혈적교환에서 그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Lawrence*가 연출하는 love-making의 과정에서 *Tom*과 *Lydia*의 만남을 promising relationship으로 이끄는 감정에 있어 어색한 표현이 없지 않다.

‘They did not take much note of each other, consciously(R55)’라는 표현등은 가당치도 않은 표현이 아닐까?

그에게 있어서 순수한 사랑은 결국 의식적 차원이나 이성적 차원에서 생각되는 경험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런 표현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혼란은 있다.

어쨌든 그들은 전통적인 표현을 빌면 ‘mind와 body’로 구분되는 idea의 산물이 아니라 ‘conscious와 unconsciousness’, 또는 ‘personal’과 ‘impersonal’의 idea이며 이는 상대방의 표면적 ‘personality’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의 unconscious aspect에서 경험되는 impersonal-tone에 극적으로 호응하 오는 unconsciousness와의 접촉만이 건강하고 건전한 사랑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육체의 교섭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Lydia*가 경험하고 있는 출산의 고통에서 노출되고 있는 생명의식에도 *Lydia*와 공유하는 *Tom*의 impersonal-tone을 읽을 수 있다.

Ⓐ One afternoon, the pains began, Mrs Brangwen was put to bed, the midwife came. Night fell, the shutters were closed, Brangwen came in to tea, to the loaf and the pewter teapot, the child, silent and quivering, playing with glass beads, the house, empty, it seemed, or exposed to the winter night, as if it had no walls.(R.74)

Ⓑ Sometimes there sounded, long and remote in the house, vibrating through everything, the moaning cry of a woman in labour. Brangwen, sitting downstairs, was divided. His lower, deeper self was with her, bound to her, suffering.(R.74)

Ⓒ Elsewhere, fundamental, he was with his wife in labour, the child was being brought forth out of their one flesh. He and she, one flesh, out of which life must be put forth. The rent was not in his body, but it was of his body. On her the blows fell, but the quiver ran through to him, to his last fibre. She must be torn asunder for life to come forth, yet still they were one flesh, and still, from further back, the life came out of him to her, and still he was the unbroken that has the broken rock in its arms, their flesh was one rock from which the life gushed, out of her who was smitten and rent, from him who quivered and yielded.(R.74~5)

① He started. There was the sound of the owls — the moaning of the woman. What and uncanny sound ! It was not human — at least to a man.(R.80)

② Something made him go and touch her fingers that were still grasped on the sheet, Her brown-grey eyes opened and looked at him. She did not know him as himself. But she knew him as the man. She looked at him as a woman in childbirth looks at the man who begot the child in her : an impersonal look, in the extreme hour, female to male. Her eyes closed again.(R.81)

아이는 자기를 거쳐 아내에게서 나온다.(the life came out of him to her.)(R.75) 라고 생각하는 Tom은 그러나 새로 태어나는 생명때문에 아내가 갈가리 찢겨 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도 진통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Tom은 Lydia의 탈인성적모습(impersonal look)(R.80)을 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Tom은 Lydia에게서 unconscious level의 감흥에 빠진다; 고통은 평화로 바뀌고 내장은 기뻐다.(But his heart in torture was at peace, his bowels were glad.)(R.80)라는 말이 그것이다.

고통이 평화로 전환되는 변화의 모태가 되었듯이 축복도 고통도 평화도 모두가 하나의 moment로써 vital life-motive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moment는 다른 movement와의 작용으로 재빨리 다른 과정으로 옮겨간다. ‘oneness’에서 ‘separate’로 교차되는 감정과 행위의 이동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She(Lydia) leaned it (her head) against him, and lay still, with sunk head, a little tired, effaced because she was tired. And her tiredness was a certain negation of him... He put his mouth on hers,... she was drifting away from him again.

And he wanted to go away. It was in tolerable. He could bear no more. He must go... But she turned away from him.(R.46~9)

즉, ‘oneness’의 행위가 ‘separate’의 전제가 된 것처럼 두개의 movements가 하나의 event에 포함되어 진행되는 변화의 과정을 본다.

이같은 Tom과 Lydia의 관계는 끝없이 ‘other’에의 의식과 그것의 수용을 통해서 완벽한 individuality를 실현하기 위한 연습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Tom과 Lydia에게서도 균형과 조화의 유지에 문제는 있었다: ‘That’s her’ (R.29)라는 Tom의 경탄은 이미 그 말속에 ‘otherness’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겠거니와 Lydia에게서 Tom이 느끼고 있는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이국적 정서 또한 자신에게 매우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See R.32) 바로 이런 문화적 배경이 상대를 갈라놓은 인식의 차이를 조성하고 있고 새로운 life-

mode를 구축하려는 노력에 장애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see R.61-2)

Lawrence에게 있어서는 상대를 'other'로 수용하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파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When a force flashes and has no response, there is devastation”

(pu.24)

이에 대해서는 Tom도 Lydia도 실수는 있었다. 즉 Tom이 Lydia를 보는 순간 그녀에게서 느끼는 'otherness'에 압도된 나머지 그녀가 발산하는 otherness의 힘에 응답할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Lydia 또한 목사관의 부엌에서 Tom에게서 경험한 입맞춤에도 불구하고 Tom의 능동적인 접근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실 Lydia는 Tom의 무응답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을 흔쾌히 말기겠다는 적극적인 응답을 보낼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함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 둘 수 없는 처지인 점이 안타까운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Tom을 노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간격과 공간(a gap, a space.)(R.93)이 이 두사람 사이의 확고한 관계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Lawrence에게는 결국 Tom과 Lydia가 이상적인 삶의 형태를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이의 실현을 위하여 'other'의 수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일깨워 주는 일이 남아 있을 뿐이다.

“The great relationship, for humanity, will always be the relation between man and woman.”⁹⁾은 자신의 rule인 것이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간격과 공간을 좁히는 노력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Lydia의 Tom을 향한 격렬한 항의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했던 것이다.

“Would you like to have another woman?”

“Why do you? She repeated.” “Why do you want deny me? ...” “Why are n't you satisfied with me? ...” “Paul used to come to me and take me like a man does. You only leave me alone or take me like your cattle, quickly, to forget me again — so that you can forget me again.” “I want you to know there is somebody there besides yourself? ...”

“you come to me as if it was for nothing, as if I was nothing

9) *Phoenix, Morality and the Novel.*, p. 531.

there. When Paul came to me, I was something to him - a woman, I was.
To you I am nothing - it is like cattle or nothing-'.(R.93~4)

‘당신 외에도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는 *Lydia*의 호소에 *Tom*은 *Lydia*의 자신에 대한 항의가 자신을 반대한다거나 적대시하는 비난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other*’의 정서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다음 순간 *Lydia*의 재촉성의 ‘Come here’(R.94)라는 간청어린 요구에 *Tom*의 피는 내부에서 불타고 만다.(The blood burned in him.)(R.94)

이러한 *Lydia*의 호응에 반응하려는 *Tom*은 한순간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Tom*이 *Lydia*의 요구에 호응에 가기에는 거의 필사적인 맹종(an almost deathly effort of volition, or of acquiescence.)(R.94)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Lydia*가 바라는 것은 *Tom*이 자기앞에 굴복하여(submission)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뛰어 들어와(participation)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Tom*으로서 *Lydia*의 간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함은 곧 자신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믿고있다. 그러므로 *Lydia*의 간청을 거부하는 것이 아직은 자기를 구하는 길(to save himself)(R.95)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가 마침내 *Tom*은 ‘자기 내부에서 아내를 발견하려는 암류와 같은 강렬한 욕구’(subterranean force of desire)(R.95)를 자각하고는 보다 진실한 자아를 알고 싶은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려는 듯, ‘*Conscious self*’를 버리고 자기를 풀어 ‘*state of unconscious self*’ 상태에서 *Lydia*에게로 다가간다. 그리고 그는 *Lydia*의 실체를 발견한다.

His blood beat up in waves of desire. He wanted to come to her, to meet her. She was there, if he could reach her. The reality of her who was just beyond him absorbed him. Blind and destroyed, he pressed forward, nearer, nearer, to receive the consummation of himself, be received within the darkness which should swallow him and yield him up to himself. If he could come really within the blazing kernel of darkness, if really he could be destroyed, burnt away till he lit with her in one consummation, that were supreme, supreme.(R.95)

양성의 능동적인 참여속에 이룩되는 교환에서 마침내 자각되는 ‘*Individuality*’의 존재를 *Lawrence*는 드디어 정리한 것이다. *Lydia*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자기파멸이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휩싸였을때의 *Tom*이 지녔던 표면적이고도 가식적인 자아는 이제 심층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각하게된 ‘*other*’의 수용으로 교환의 극치를 경험한다.

*Tom*과 *Lydia*에게는 이제 더이상 불안은 없다. 오직 기쁨이 지배하는 조화와 균형,

요구와 호응이 일치하는 폭발적인 환희의 극치만이 있을 뿐이다.

Lawrence는 Tom과 Lydia가 이룩하는 만남을 지고지상의 것으로 규정했다. 자기자신을 내던지고 자기자신을 삼킬 뿐만 아니라 흡수하고 흡수당하는 암흑속에서 서로의 실체를 내어주고, 동시에 경험하는 극치, 그 찬란한 핵심속에 뛰어들어 파괴되는 불살라짐이 빛이 되는 그런 기쁨 속에서 자기를 잃고 상대를 찾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Tom과 Lydia가 이를 실현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의 능동적인 이끌림은 신세계의 발견(The new world was discovered.)(R.95)과 비유되었다.

It was the entry into another circle of existence, it was the baptism to another life, it was the complete conformation... The new world was discovered, it remained only to be explored...

At last they had thrown open the doors, each to the other, and had stood in the doorways facing each other, Whilst the light flooded out from behind on to each of their faces, It was the transfiguration, glorification, the admission.)(R95~6) Italic mine

변용과 찬미와 천국에의 입장, 그것은 Tom과 Lydia의 관계에 있어 전혀 새로운 국면이며 영원히 축복받는 조화와 균형의 세계에 그들이 마침내 도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The light of the transfiguration burned on in their heart. He went his way, as before, She went her way, to the rest of world there seemed no change. But to the two of them, there was the perpetual wonder of the transfiguration.)(R.96)

'Lydia, 그녀는 Tom의 문이요, Tom 그는 그녀의 문'이었다.(She was the door way to him, he to her.)(R.96) 이같은 조화의 문 너머에는 Lydia가 바로 자기(Tom) 인생의 입구요 출구(the gateway and the wayout)(R.96)이며 Lydia는 Tom자신의 세계 밖에 있는 존재(She was beyond.)(R.96)로 Tom은 오직 Lydia를 통해서 만이 외부세계(the beyond)를 여행하는 사람으로 남는다. 그것은 Tom과 Lydia가 존재하는 세계는 그들이 도달한 변용과 찬미와 경탄의 천국으로 그들 또한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신비로 남아 있다.

Lawrence자신도 그가 창조해낸 한 쌍의 동소체적자아¹⁰⁾의 실현을 신성시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는 신(God)을 동원하여 자신이 창제한 인물을 윤색했다.

Now the was declared to Brangwen and to Lydia Brangwen, as they stood

together. When at last they had joined hands, the house was finished, and the lord took up his abode. And they were glad.(R.96)

*Tom*과 *Lydia*의 결합이 신전의 완성에 비유되었고 양친으로서의 자기들(*Tom/Lydia*) 부부에게도 의식됨이 없이 하느님께서 그들속을 통과(passed through the married pairs.) (R.96) 하셨다거나 하느님(God)이 바로 *Anna*의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신성의 과시, 그녀(*Lydia*)가 부르면 그(*Tom*)가 대답하고, 그가 청하면 아내의 응답은 당장 아니면 조만간에 왔다던 'otherness'를 감지하는 이들 두 부부의 도취속에 무지개가 걸려 있는 이 하늘 끝에서 저하늘 끝까지의 자유롭고 그 넓은 공간에 *Anna*의 영혼 또한 더 없이 안정되어있다.

*Tom*의 전통적 조야함과 *Lydia*의 이국적 정서의 세련, 그것은 *Lawrence*로 하여금 신비롭고 초절적인 사랑을 그리려는 욕망을 자극했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는 무상의 원만함에 비유될 수 있는 사랑을 그리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그는 그가 *Psychoanalysis and the Unconscious*에서 주장했던 그의 신념에 따라 사랑에 대한 이상의 한 mode를 무지개의 비전을 도중에서 포기하는 다음 세대와는 달리-제 1 세대의 *Tom*과 *Lydia*의 결합-그들관계의 변화와 유동적 체험-을 통해서 예증해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
- 10) *Lawrence*는 *The Rainbow*의 참신함에 대하여 언급하는 가운데 인물의 심리설정이 잘못되게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소체적(allotropic states) 자아를 주창하는바 여기서 그는 이성과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양식을 작중 인물로 통하여 표출해냄에 있어서 작가가 사용하는 감지력의 중요성을 선언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관한 *Lawrence*의 주장은 Huxley ed. Heinemann 1934. pp. 197~9를 참조할 것.